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7. 18(수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민자철도팀	담 당 자	• 김태형 팀장, 이광민 사무관, 변상엽 주무관 • ☎ (044) 201-3982, 3985
	광역도시철도과	담 당 자	• 이우제 과장, 김인규 사무관 • ☎ (044) 201-3959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"주 52시간에... 철도 개통 줄줄이 늦어진다" 보도 관련

-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은 지난 5월과 2월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,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.
-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공사비와 공정계획은 관련법령*에 근거하여 “건설공사 표준품셈**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,
 - *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2조의2 3호
 - **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)」에 따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매년 공고
-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에, 표준품셈에 따른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*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산정(우선협상대상자측 확인)되어 있습니다.
 - * (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, 1-3 적용방법, 2호)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.
- 따라서, 2개 사업의 공사비 및 공정계획은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우리부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,

- 이들 2개 노선 외에 신분당선, 서울 도시철도 4·5·8호선 연장선 사업 등도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,
-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, 7.18) >

- GTX-A, 신안산선 등 민자사업 사업제안서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어,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기연장 및 사업비증가 불가피
- GTX-A노선의 경우,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계획을 새로 짜면 사업비가 5% 이상 증가, 개통 시기도 약 9개월 늦어질 것(A건설 관계자 인터뷰)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이광민 사무관(☎ 044-201-39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